



강진 김영일



곡성 김광휘



구례 박진호



담양 박종영



무안 이기성



보성 안구일



순천/광양 김승호



순천/광양 황경석



여수 김석철

# 호남권 최대 '순천형 창업 보육센터' 설립 본격 시동

## 더 너그러워 경제도시 실현 위한 힘찬 발걸음

순천시가 호남권 최대 '순천형 창업보육센터' 설립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시는 지난해 10월 27일부터 30일까지 중국의 실리콘밸리로 불리는 북경 중관촌을 다녀온 이후, 중국 최대 실리콘밸리 관계자들과 교류하면서 호남권 최대 순천형 창업보육센터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이 생겼다.

후속 조치로 북경 중관촌 관리위원회 주요인사 2명을 2019년 1월 순천 창업보육센터 구축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계획이며, 양 기관 창업 플랫폼 혁신성장과 상생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도 계획 중이다.

청년들이 아이디어만 가지면 창업을 하고 스타트업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창업 지원을 확대하고 순천시와 기업, 지역대학, 청년들 간 긴밀한 네트워크 구축 및 전략 마련으로 호남권 최대 순천형 창업보육센터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순천시는 신 기후체제에 대비해 대기환경 개선과 지구 온난화 요인

해소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보급, 설비 효율화 시책 등을 추진하면서 2018년 10월말 에너지 자립을 8.9%를 달성했다.

문재인 정부는 국정과제에서 '신재생에너지 3020'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20% 확충) 이행계획을 발표했고 순천시는 정부정책을 뛰어넘는 에너지자립을 30% 달성을 목표로 3030 에너지 생산·복합도시 순천 추진 계획을 수립해 추진 중에 있다.

순천시는 올해까지 에너지자립을 목표 10% 달성을 위해 공공청사 스마트에너지시티 인프라구축, 경로당 신재생에너지설치, 풍력·태양·도사·남재동 일원 스마트에너지시티 구축, 3030 에너지 생산·복합도시 순천 추진 사업 등을 실행한다.

시는 시민들과 함께 쾌적한 정주환경 여건조성과 전기료 절감 등 진정한 에너지 복지를 실현해 시민이 행복할 도시를 만들어 간다는 계획이다.

순천시는 만성적인 경기침체와

내수부진으로 경영악화에 시달리는 지역 소상공인들의 기를 되살리고 지역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경영안정 및 기 살리기 사업 추진으로 성장기반을 마련한다.

지역의 소상공인들의 사업인프라 구축을 위해 순천시 소상공인지원센터를 2019년 8월에 설립할 예정이다. 센터는 1인?영세?고령화 위주의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밀착 지원에 힘쓰고, 인터넷 시장환경에 대비해 SNS 교육 등 소상공인 아카데미를 추진한다. 또한, 순천시 소상공인의 날 기념행사 및 지역 상권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행사 등을 지원하는 등 지역 소상공인들의 기를 살려나갈 계획이다.

순천시는 2019년에는 무너져가는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지역수퍼마켓협동조합 방장·방동시설 구축과,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 지원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아랫장 신도시상 사업과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추진 등 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영상 애로사항 해결과 경제 활성화에 주력할 예정이다.

순천=김승호 기자

# 영광군, 'e-모빌리티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확정

## 따뜻한 기후 여건·친절한 숙식 등 훈련환경 최적



영광군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e-모빌리티 사업이 지금까지의 성과를 인정받아 2019년 중소벤처기업부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대상자로 확정되어 1차년도 국비예산 10억을 확보하는데 성공하였다. 지식산업센터란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사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

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 건축물로 영광 e-모빌리티 지식산업센터는 2019년부터 3년간 240억 원(국비 160억 원)을 투입하여 대마산 일대지 인근 e-모빌리티 배후단지(연면적 18,000㎡(지상 4층, 50실)규모)의 건물을 건축한다.

영광군은 e-모빌리티 산업 육성을 위해 관련 기업 및 기관을 유치할 수 있는 인프라 시설 확충 및 e-모빌리티 기업의 원활한 비즈니스 환경조성을 목적으로 e-모빌리티 기업사무실, e-모빌리티 전시관, e-모빌리티 체험관 등 다양한 시설을 운영할 계획이다.

e-모빌리티 특화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통해 명실상부 e-모빌리티 중심도시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지식산업센터 내 e-모빌리티 관련 기업을 집적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신규일자 창출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군 관계자는 "이번 지식산업센터는 전국 10개 지역에서 6개 지역이 최종 선정되었는데 마지막까지 치열하게 경쟁했다. 특히 인구, 경제, 산업 여건 등이 우리 군보다 비교적 우수한 지역의 경쟁에서 이루어낸 결과로 e-모빌리티 산업이 미래 신산업으로 주목받고 있고 이 중심에 영광군이 있음을 보여주는 쾌거"라고 전했다.

영광=서희권 기자

# 광양시, 올해 농업 신기술보급 시범사업 13억 원 투자

## 과수·채소 등 5개 분야 28개 사업 이달 말까지 신청 받아

광양시는 광양농업의 발전과 농업인의 다양한 영농기술 습득을 위해 5개 분야의 신기술 보급 시범사업에 13억 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기술 보급사업에 추진되는 사업으로는 식량작물, 과수, 채소, 화훼·특작, 기술지원 등 5개 분야 28개 사업이다.

우선, '과수분야'에는 ▲기후온난화 대응 아열대소득과수 도입시범 1개소 ▲소비 트렌드 변화 과일(폴립코트) 생산단지 육성(2ha)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74ha), ▲아열대과수 규격박스 1만5천매 제작 지원 ▲참다래 안정

생산 기술시범 ▲참다래 재배기반 조성 시범(0.4ha) ▲매실대체 새로운 소득과수(체리) 재배 등 7개 사업이다.

'채소분야'에는 ▲외부환경 데이터 기반 스마트 양액공급 시범(0.3ha내외) ▲1시간 1특화작목 육성사업(생강 관련 5개 사업) ▲수정별 이용 수확 생력화 시설 지원(1,600통) ▲이상고온 대응 시설재배 온도저감기술 시범(1ha) ▲딸기 고실재배 시범(0.5ha) ▲단풍아이스 보급형 스마트팜 단지 조성 등 10개 사업이 추진된다.

'화훼·특작분야'에는 ▲생산비절감 화훼류 경쟁력제고 시범

(0.3ha) ▲화훼 브랜드육성 규격박스 제작 ▲취나물 비가림하우스 설치 지원(2개소) ▲취나물 간이 예방시설 설치 지원(2개소) ▲취나물 브랜드 육성 규격박스 제작(2만매) 등 5개 사업이 이뤄진다.

'식량작물분야'에는 '벼 저비용유기재배 시범단지 조성'과 '어깨동무권선택 농가경영개선 지원(2개소)'가, '기술지원분야'로 청년농업인을 위한 '영농승계 청년농창업 지원'과 '청년·귀회원 맞춤형 과제지원' 사업이 진행된다.

이번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는 오는 31일까지 해당 읍면동 농업인상담소나 시청 기술보급과로 방문해 사업을 신청하면 된다.

광양=김승호 기자

# 순천시의회 농촌발전특별위원회 작목반 간담회 개최

## 단체별 실시...생생한 지역 농업인의 의견 청취



순천시의회 농촌발전특별위원회는 순천시 지역대표 작목반과 간담회를 실시하고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해 큰 호평을 얻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7~8일 이틀간 총 6회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지역대표 작목농가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작목반별 현안사항 해소 및 지역 실정에 맞는 시책 수립을 위해 마련됐다.

순천시 농민회를 포함한 24개 단체의 대표들이 참석하여 순천시 대표작목인 벼, 꼬들배기, 복숭아, 매실, 딸기, 오이 등의 대외 경쟁력 향상을 위한 많은 의견을 개진하였다.

박계수 위원장은 "이후 순천시 농업기술센터 관계자와의 면담을 통해 건의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실시하고 시급성에 맞춰 정책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작목반 대표는 "작목반 대표가 된지 8년째인데, 우리 농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이런 자리를 만들어 준 것은 처음이다"면서 의회에 감사함을 전했고 "어려운 농촌 현실을 감안해 제시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 줄 것"을 부탁했다.

한편, 순천시의회 농촌발전특별위원회는 박계수 위원장, 최병배 부위원장을 비롯한 유영갑·박용운·장숙희·이명옥·오광묵·김영진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9년 말까지 농촌경제 활성화와 농민의 실질적 정주여건 향상을 위해 정책적 지원 방안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순천=김승호 기자

# 광양시, 2019년 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회 개최

## 시 승격 30주년 맞아 신규사업·공약 등 시행 본격준비



광양시는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시청 상황실에서 2019년 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회를 개최한다. 8일 보고회에는 정현복 광양시장

방옥길 부시장, 국·소장, 실과소장이 참석한 가운데 공약과 신규사업, 국도비로 보고가 이뤄졌다.

또 부서별 보고가 끝난 이후는 업무에 대한 집의담판과 토론을 통해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시는 올해 시 승격 30주년이자

민선7기 2년차를 맞아 '경제, 일자리, 관광산업 육성, 생활환경과 삶의 질'에 시정의 중심을 두고 광양 경제 제2도약의 원년으로 삼아 '시민행복! 새로운 광양시대! 실현'에 주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정운영 방향으로 도·시정주기별 지속적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 신산업 육성을 결실한 산업생태계 조성, 모두가 누리는 체계적 생활복지 실현, 문화·관광도시 기반 마련, 지속가능한 희망농어촌 건설과 더욱 탄탄한 농업환경 조성,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여건 조성,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시정구현 등 7개 분야를 추진한다.

광양=김승호 기자

www.jepa.kr

**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를 운영했던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새롭게 도약합니다!**

**중소기업진흥원은** 중소기업 성장지원으로 행복공동체 구현을 목표로 기업들의 매출증대가 고용창출을 낳는 선순환 경영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전라남도 출연기관입니다.

주소 |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 2(전남도청 옆)

- 무료법률상담**
  - 무당해고·임금체불 등 비정규직 근로자 노동 상담
  - 중대 사안 관계기관 진정
  - 구체신청 지원 및 의견제출(노무사·자문변호사)
  - 유관기관 연계를 통한 상담 무료 운영
- 취약근로자 권익보호·지원**
  - 근로조건 열악사업장 근로자 상담 및 법률지원
  - 감시단속적 근로자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활동
  - 일용직 근로자 보호를 위한 임금체불 진정 상담 및 지원
- 최저임금·비정규직 차별신고센터 운영**
  - 중소기업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위반사례 접수
  - 비정규직 근로자 상담을 통해 차별적 요소 확인 및 시정요청, 행정기관 법률구제 신청을 위한 서면작성 지원 및 법률 자문
- 노동법률교육**
  - 근로자 및 사용자 대상 노동법 및 노사관계관련 교육 실시
  - 비정규직에 대한 인식개선 및 적법한 인사관리방안 안내